

부모의 양육태도와 초등학생의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부모구성에 따른 다집단분석

허자연¹, 이민영², 이미경³, 엄정호^{3*}

¹고려대학교 생활과학과 박사과정, ²고려대학교 두뇌동기연구소 연구교수, ³고려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Medi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itude and Life Satisfact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Multi-group Analysis on Parental Composition

Zayoun Huh¹, Minyoung Lee², Mi Kyoung Lee³, Jeongho Uhm^{3*}

¹Doctoral Course, Graduate School of Human Ecology, Korea University

²Ph.D, Brain & Motivation Research Institute, Korea University

³Doctoral Course, Department of Education, Korea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부모구성(부모, 한부모)에 따라 부모의 양육태도(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가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KCYPS 초4 패널 데이터에서 총 310명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애정적 양육태도는 부모구성에 상관없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양육태도(애정, 감독)는 한부모가정 집단에서 자아탄력성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부모가정 집단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셋째, 애정적인 양육태도는 한부모가정 집단에서만 자아탄력성을 매개하여 자녀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고, 부모구성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짐을 밝혔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와 실무적 개입방법, 후속 연구에서의 방향성 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삶의 만족도, 부모구성, 양육태도, 자아탄력성, 다집단분석

Abstract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group difference of parental composition (parents, single parent group)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itude (supervision, affection, rational explanation) and children's life satisfaction through ego-resilience as a mediating factor. For this, a multi-group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310 student data from the 4th panel data of the KCYP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parents' affectionate parenting attitude on children's life satisfaction was significant in both groups. Second, affectionate and supervisory attitude had effects to improve ego-resilience only in the single-parent group. Third, the affectionate attitude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children's life satisfaction by mediating ego-resilience only in single parent group. This study verified the structural relationship of factors affecting children's life satisfaction and different the pattern of that relationship depending on parental composition. Finally,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presented.

Key Words : Life Satisfaction, Parental Composition, Parental Attitude, Ego-resilience, Multi-group Analysis

*Corresponding Author : Jeongho Uhm(jeonghouhm@korea.ac.kr)

Received September 14, 2020

Accepted December 20, 2020

Revised December 3, 2020

Published December 28, 2020

1. 서론

전통적으로 초등학교 시기의 아동은 비교적 행복하고 평화로운 시기를 보내는 것으로 인식되어져 왔으나[1], 2018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아동 종합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삶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60.3점으로 OECD회원국 중에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2], 2019년 아동·청소년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4.6명으로 OECD 평균인 11.3명을 크게 웃돌고 있다[3]. 또한 아동학대 조사에서는 전체 아동의 신체, 정서, 방임 등의 학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2019년 보고된 아동학대는 41,289건으로 전년 보다 13.7%로 증가했다고 보고되었다[4]. 선행 연구에 따르면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개인의 건강한 후속 발달을 예측하는 강력한 요인일 뿐만 아니라, 전 생애 발달에 영향을 미치므로[5] 아동의 건강하고 적응적인 발달을 위해 아동의 삶에 만족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긍정심리학 연구가 진행되면서 아동의 행복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6]. 연구된 바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삶의 만족도는 개인의 정신건강, 사회적 관계, 학교생활 적응 등에 영향을 미친다[7]. 또한 개인의 높은 삶의 만족도는 부정적 생활사건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요인인 것으로 보고되었다[8]. 이처럼 삶의 만족도는 다양한 측면에서 개인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부정적 상황에서도 긍정적 성장을 돕는 유용한 심리적 요인이거나 초등학생의 삶의 만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들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9].

특히 오늘날의 초등학생은 조숙한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경험할 뿐 아니라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 노출되어 있다. 아동은 초등학교 4학년 경이 되면 사춘기에 들어서는 경향성을 보이며, 인지적 성숙보다 신체적 정서적 변화를 빨리 경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와 밀접한 관계를 지속하기 원한다. 실제적으로 초등학생의 삶의 만족 필수조건은 '가족 및 친지간의 원만한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10]. 하지만 한국의 초등학생은 이른 나이부터 과열된 입시와 경쟁적 학업 환경에 놓여있고, 부모 자녀 간의 학업적 갈등은 부모 자녀 관계를 취약하게 할 뿐 아니라 아동으로 하여금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게 한다[11]. 이러한 배경에서 초등학생의 발달 수준과 환경 특성을 고려한 삶의 만족을 높일 수 있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중 가장 활발히 진행된 연구는 초등학생의 삶의 만족과 관련된 변인의 확인으로[12], 보고된 바

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삶의 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개인, 가족, 학교 요인이다[13-15]. 이 중에서도 개인 변인이 가장 많이 연구되었고, 가정 변인을 다룬 연구와 아동의 삶의 만족에 대한 종합적 의미를 탐색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12]. 아동의 부적응은 학업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갈등, 가구 특성과 같은 가정에서의 부모 요인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2] 본 연구에서는 가구특성(한부모가정, 부모가정)에 따라 부모 양육태도(애정, 감독, 합리적 설명)가 자아탄력성 변인을 매개로 초등학생 자녀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부모구조는 자녀의 발달과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16,17] 부모구조에 따라 아동의 삶의 만족이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하며, 자아탄력성은 유전과 환경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어 개인으로 하여금 환경에 더 적응적인 수행을 하도록 하는 요인으로[18] 부모와의 관계를 통한 자아탄력성 향상은 부모의 노력 등과 같은 가변적 조건에 따라 자녀와의 관계의 질 향상이 가능하기에 매개 변인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삶의 만족

Myer와 Diener[19]는 삶의 만족을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만족감이라고 정의했다. 이 때 주관적 안녕이란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느끼는 긍정적 사고의 경향성을 말하며, 삶의 만족은 개인이 기대하는 삶의 수준과 현재 개인이 경험하는 삶의 수준과 상황이 같을 때 비로소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주관적이다[19]. 또한 삶의 만족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개인 요인과 환경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계속 변화하는 특성을 보인다[20]. 그리고 삶의 만족은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 외에도 자신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 예측과, 본인의 삶에 대한 중요한 타인의 평가와 견해에 영향을 받는다[21]. 즉, 삶의 만족은 주관적인 동시에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 요인들의 영향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삶의 만족은 개인으로 하여금 다양한 정서를 경험하게 하는데, 개인은 스스로 지각하는 삶의 만족 수준에 따라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22,23]. 삶의 만족의 긍정 정서는 즐거움, 행복감, 편안함 등이고, 삶의 만족의 부정 정서는 짜증, 우울, 불안, 무기력 등이 있다[22,23]. 이때 삶의 만족은 짜증, 우울, 불안 등과 부

적 상관이 있음 확인되었으며[24], 아동기의 삶의 만족은 연령변화에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25]. 이는 초등학생의 삶의 만족 경험이 이후 발달에 영향을 주는 중요 변인임을 시사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삶의 만족은 환경적 맥락에 영향을 받으므로 삶의 만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개인, 개인의 환경, 개인이 속한 집단의 역동과 특성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26].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들은 크게 개인, 가족, 학교 요인으로 보고되었다[13,14,27]. 특히 부모 변인이 초등학생의 삶의 만족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부모와의 관계와 원활한 의사소통이 아동의 삶의 만족과 행복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학교에서 점차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령기 아동에게 교사와의 관계도 삶에 만족에 영향을 미쳤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교사의 영향은 감소하였고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는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10,28]. 따라서 초등학생의 삶의 만족을 보다 다각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부모관련 변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자녀의 인지, 사회, 자기개념, 정서적 안정감, 성격발달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모양육태도[29]가 아동의 삶의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2.2 부모의 양육태도와 삶의 만족

부모는 아동이 태어나 최초로 경험하는 사회적 관계로 아동의 성격형성과 정서발달에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30].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인지, 사회, 자기개념, 도덕성, 정서적 안정감, 성격발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29]. 양육태도란 아동을 양육하는데 있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부모의 태도 및 행동으로[31], 긍정적인 양육태도와 부정적인 양육태도로 구분된다[32].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애정, 감독, 합리적 설명을 포함하며, 부정적인 양육태도로는 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학대, 방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호요인을 중심으로 아동의 삶의 만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따라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인 애정, 합리적 설명, 감독이 아동의 삶의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중 애정적 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친밀감을 표현하고 자녀를 존중, 수용하는 등 자녀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태도로 정의된다[32].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는 아동의 삶의 만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변인이며[33], 부모의

거부적이고 적대적 양육태도 및 갈등은 아동의 부적응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보고되었다[34]. 둘째로 합리적 설명은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지도함에 분명한 기준과 합리적 이유를 갖는 동시에 일관적이고 애정적인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상과 훈육적 처벌을 포함하는 것이다[32].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방식이 민주적일수록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증가하고 부적응적 행동이 낮아지며[35] 아동이 부모의 설명을 간섭과 통제가 아닌 애정과 격려로 받아들이는 경우 행복감을 느낀다고 보고하였다[36]. 마지막으로 감독은 자녀의 학교생활, 교우관계 등 부모가 아동의 일상에 대해 가지는 전반적인 관심이다[37]. 감독은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를 모두 포함하며 긍정적 측면에서의 감독은 자녀로 하여금 부모가 자신에게 애정을 많이 갖고 있다고 지각하게 한 반면 부정적 측면에서의 감독은 부모가 자녀의 생활을 지휘, 통제 하는 것으로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다[38]. 종합하면, 부모의 적절한 통제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관되고 애정적인 양육태도는 아동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초등학생의 긍정적 발달과 삶의 만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39-41]. 그러나 초등학생의 삶의 만족은 환경적 요인으로만 전부 설명될 수 없으므로 개인 요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2.3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자아탄력성이란 다양한 스트레스를 적절히 수용하여 환경에 적응하는 개인의 능력이며, 동시에 개인이 단기 혹은 장기적으로 자신의 일상적 행동을 통제함으로써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는 능력을 말한다[42]. 실제로 자아탄력성이 높은 개인은 환경에 적응적이고, 높은 자신감을 가질 뿐 아니라 자기 수용적이며 안정적 성격을 보였다[33,43,44]. 이러한 자아탄력성은 유전(세로토닌 전달체)[45], 개인적 요인(지능, 성격특성)[46], 사회적 요인(부모와의 관계, 중요 타인과의 관계)[47]에 영향을 받으며 아동의 전반적인 인지, 정서, 및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심리적 기제이다[45,48]. 즉, 자아탄력성은 개인 특성과 환경에 높은 관련을 갖는 역경극복능력으로 일생동안 안정적인 기능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개인의 심리적 안녕에 기여할 뿐 아니라[49] 불안을 낮추고 적응적인 긍정적 태도를 갖게 하는 개인 내적 자원이다. 따라서 자아탄력성의 이러한 특성은 개인의 적응능력을 발달시켜 심리적 안녕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고 사회화를 촉진함에 따라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돕고 주관적 삶의 질을 높여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일수록 삶의 만족감을 더 많이 경험하였고[39,49-51] 부모의 학력과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통제한 후에도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아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그 영향력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2]. 송진영과 박민자[53]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쳤으며, 부모의 돌봄은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아동의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쳤다[54].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정서적 환경과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아탄력성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2.4 부모구성(부모, 한부모)의 조절효과

오늘날 급격한 사회변화와 함께 개인의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가족의 유대가 약해지면서 한부모가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55]. 한부모가정이란 부모 중 한 사람과 미혼자녀로만 구성된 가구로[55], 자녀를 양육하는 열 가구 중 약 한 가구는 한부모가정인 것으로 나타나[56] 한부모가정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한부모가정은 부모가정에 비해 자녀의 생계와 양육에 대한 책임의 증가로 인해 다면적 어려움에 처해있다.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들은 경제적 부담과 취학자녀의 양육과 교육관련 정보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득이 낮은 한부모일수록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과 함께 재정적 부담을 느끼고, 한부모는 임시 및 일용근로자인 경우가 많아 장시간 근로와 휴일 부족으로 자녀 양육 시간 확보와 돌봄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56]. 이러한 한부모 양육자의 경제적·심리적 스트레스는 적절한 자녀 양육을 저해하며, 양육자가 적응적이지 못할 시 자녀와의 관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57,58] 아동의 삶의 만족을 저하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족과 한부모가정의 삶의 만족은 다른 수준이라고 보고되었다[24,59,60].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부모가정의 자녀는 부모가족의 자녀보다 낮은 삶의 만족을 보였고[61,62], 다수의 연구에서 한부모자녀의 자아탄력성과 행복감은 부모가족의 자녀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하였으며[24, 60], 아동의 적응 수준 역시 부모가족의 자녀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63]. 연구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두고 한부모가정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충족될 수 없는 아동의 욕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였다[24, 64]. 그러나

한부모가정의 자녀가 반드시 낮은 삶의 만족도를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양호한 경우 한부모가정의 부모의 양육태도는 양호하며, 아동의 심리적 적응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57]. 또한 가정의 구조적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한부모의 자녀가 적응과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는 수준이 부모가정과 비슷하게 나타난 연구 역시 보고되었다 [65]. 이와 같은 비일관적인 연구 결과는 부모구성에 따라 달라지는 아동의 삶의 만족을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했을 때 부모의 양육태도(애정, 감독, 합리적 설명)는 초등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33,35,36], 위의 경로를 개인내적 요인인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이 매개할 것으로 보인다[52-54]. 나아가 가구특성(한부모가정, 부모가정)이 부모양육태도와 초등학생의 삶의 만족 간의 관계, 부모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의 간의 관계, 자아탄력성과 초등학생의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으로 것으로 여겨진다[24,6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이 아동의 삶에 만족도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력을 살펴보고 부모구성에 따라 변인 간 관계가 달라지는지를 검증하여 아동의 삶의 만족에 관련된 요인들 간의 종합적 이해를 도모하고 삶의 만족을 향상시키는 개입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3. 연구 모형 및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모형과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Fig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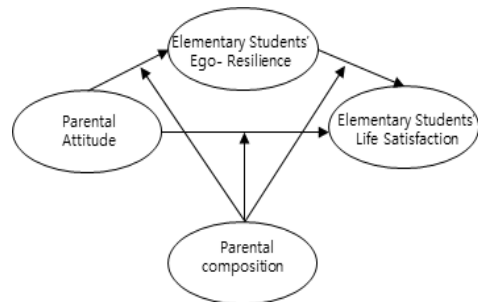


Fig. 1. Multi-group Analysis of the Research Model

연구문제 1. 부모의 양육태도(애정, 감독, 합리적 설명)가 초등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부모구성(부모, 한부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부모양육태도(애정, 감독, 합리적 설명)가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은 부모구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부모양육태도(애정, 감독, 합리적 설명)가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초등학생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부모구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초4패널 데이터 중 1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KCYPS의 표본은 층화다단계집락표집을 사용한 중단조사로서 초4패널 1차년도 데이터(2010년)는 2,378명의 아동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다. KCYPS의 패널 데이터는 연구자의 관심 변인을 모두 포함하고 있었으며, 한부모 가정 아동 샘플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 포함된 연구대상은 조사에 참여한 총 응답자 중 310명이 포함되었다. 이들은 부모(친아버지와 친어머니)와 거주한다고 응답한 155명 및 한부모와 거주중이라고 응답한 155명(친아버지-49명, 친어머니-106명)이다. 부모와 거주중이라 응답한 학생은 원데이터에서 1,928명이었으나 한부모와 거주중이라고 응답한 155명 학생과의 비율을 고려하여 155명의 부모가정 학생을 선정하였다. 선정 과정에서 spss상에서 무작위로 샘플을 추출하여 연구의 내용이 일반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집단의 성별 구성은 표 1과 같다.

3.2 측정도구

3.2.1 삶의 만족도

초등학생 자녀의 삶의 만족도는 김신영 등[66]에 의해 개발된 '나는 사는데 즐겁다.',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총 3문항으로 측정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식 척도로 채점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3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1로 나타났다.

3.2.2 부모의 양육태도

초등학생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허묘연[32]이 개발하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이

를 재구성한 21문항 중 총 10문항이 사용되었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 하위요인 중 긍정적 양육태도를 의미하는 애정(4문항), 감독(3문항), 합리적 설명(3문항)을 포함한다. 애정은 '내게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신다.', 감독은 '내가 방과 후에 어디에 가는지 알고 계신다.', 합리적 설명은 '부모님(보호자)의 결정을 무조건 따르게 하기 보다는 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해 주신다.' 등의 문항으로 측정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식 척도로 채점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태도로서 애정, 감독, 합리적 설명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 연구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양육태도 지각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애정 .84/.82, 감독 .79/.77, 합리적설명 .81/.79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애정 .79, 감독 .61, 합리적설명 .74로 나타났다.

3.2.3 자아탄력성

초등학생 자녀의 자아탄력성 측정을 위해 유성경과 심혜원[67]의 '나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낸다' 등의 총 14문항이 사용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식 척도로 채점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67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4로 나타났다.

3.2.4 부모구성

부모구성은 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서 제공한 가족구성 및 부모구성 정보를 토대로 하였다. 가족구성은 부모(아버지와 어머니)+자녀, 한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자녀, (한)조부모(할머니/할아버지)+자녀, (한)조부모_부모+자녀, (한)조부모_한부모+자녀, 기타로 측정되며, 부모구성은 친아버지+친어머니, 친아버지만, 친어머니만, 친아버지+새어머니, 친어머니+새아버지, 새아버지+새어머니, 새아버지만, 새어머니만, 부모님 모두 안계심으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 포함된 응답자는 가족구성에서 부모(아버지와 어머니)+자녀, 한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자녀, 부모구성에서 친아버지+친어머니, 친아버지만, 친어머니만을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3.3 자료분석

본 연구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분석을 진행하였다. 가

장 먼저, 전체응답자는 가족구성에서 부모(아버지와 어머니)+자녀, 부모구성에서 친아버지+친어머니에 응답한 부모가정집단과 한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자녀, 친아버지만 또는 친어머니만에 응답한 한부모가정집단 총 2개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기초분석에서는 각 변인들에 대한 전체 응답자 및 두 집단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자료의 정규성은 왜도 및 첨도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두 집단간 변인들의 분산의 동질성 및 평균차이 검증을 위해 독립표본 T검정(two-independent samples t test)과 Welch-Aspin 검정을 실시하였다. 구조모형 분석에서는 AMO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한 다집단 분석(multi 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부모의 양육태도가 초등학생 자녀의 자아탄력성을 매개하여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부모구성에 따라 다를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측정동일성 및 구조동일성을 검증하였으며, 집단간 경로계수의 유의한 차이를 살펴보고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해 경로계수의 간접효과 역시 검증하였다. 모든 결측치는 SPSS 프로그램 상에서 EM(expectation maximization)처리되었다.

4. 연구결과

4.1 기초분석

본 연구의 모형에 포함된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상관은 Table 2와 같다. 전체 응답자가 보고한 각 변인들의 평균점수는 삶의 만족도 3.18, 자아탄력성 2.99, 양육태도로서의 감독 3.39, 애정 3.29, 합리적설명 3.12로 나타났다. 각 변인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삶의 만족도는 모든 변인과 $p < .01$ 수준에서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갖고 있었으며 이 중 자아탄력성 및 양육태도로서의 애정과 $r = .52$ 로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 전체 자료의 왜도는 절대값 2 미만, 첨도는 절대값 7 미만의 분포를 보여 자료의 정규성이 확인되었다. 한편, 두 집단간 변인들의 평균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two-independent samples t test)이 실시되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삶의 만족도, 양육태도로서의 애정, 합리적 설명에 대한 두 집단의 등분산성 가정은 충족되었으나 부모구성에 따른 집단간 평균값의 차이는 삶의 만

족도에서만 부모가정이 한부모가정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 = 3.25, p < .01$). 자아탄력성과 양육태도로서의 감독은 집단간 등분산성이 충족되지 않아 Welch-Aspin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아탄력성($t = 4.76, p < .001$)과 감독($t = 6.53, p < .001$) 모두에서 부모가정이 한부모가정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평균값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4.2 구조모형 분석

부모의 양육태도와 초등학생 자녀의 삶의 만족도와와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가 부모구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부모가정, 한부모가정 간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4에 제시된 결과에 따르면 집단별 요인 적재치에 동일성을 부여한 측정동일성 모형의 적합도는 기저모형에 비해 RMSEA는 오히려 좋아지고 CFI의 변화량이 .01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68] 측정동일성이 만족되었다. 이어서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를 제약한 구조동일성을 검증하여 집단간 경로계수의 유의한 차이를 살펴 보았다. 그 결과 구조동일성 모형의 적합도는 측정동일성 모형과 동일 모형으로 고려할 수 있는 통계적 유의 범위 내에서 오히려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구조동일성 역시 충족되었다. 그러나 각 집단은 모든 경로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모형은 RMSEA .08이하, TLI, CFI .80 이상의 값을 보여 절대적 적합도와 상대적 적합도 모두에서 괜찮은 적합도 지수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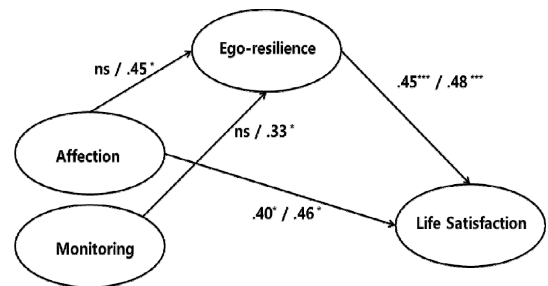


Fig. 2. Significant standardized path coefficient

Note. left side= results of parents family, right side = results of single parent family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N=310)

	N	Male	Female
Parents family	155	86 (55.5%)	69 (44.5%)
Single parent family	155	81 (52.3%)	74 (47.7%)

Table 2. Correlations

(N=310)

	1	2	3	4	5
1. Life satisfaction	1				
2. Ego-resilience	.52**	1			
3. Parental attitude - Monitoring	.33**	.45**	1		
4. Parental attitude - Affection	.52**	.45**	.43**	1	
5. Parental attitude - Rational explanation	.39**	.35**	.36**	.59**	1
Mean(SD)					
Total	3.18(.70)	2.99(.51)	3.39(.58)	3.28(.61)	3.12(.70)
Parents family	3.30(.69)	3.13(.44)	3.59(.45)	3.34(.58)	3.16(.67)
Single parent family	3.05(.70)	2.86(.51)	3.19(.62)	3.21(.63)	3.08(.73)
Skew/Kurtosis					
Total	-.65/-.15	-.32/-.02	-.84/.37	-.77/.21	-.64/.16
Parents family	-.88/.13	-.13/-.39	-.94/.17	-.95/.98	-.58/.12
Single parent family	-.49/-.13	-.23/-.14	-.53/-.03	-.61/-.28	-.67/.15

Note. parents family(N=155), single parent family(N=155) / ** $p < .01$

Table 3. Two-Independent Samples T- test

	Levene's Test		t	df	T-test M.D(S.E)	95% confidence interval	
	F	p				Low	High
Life satisfaction	.50	.48	3.25**	308	.26(.08)	.10	.41
Ego-resilience	4.17	.04	4.76***	296.484	.27(.06)	.16	.38
Monitoring	15.45	.00	6.53***	279.496	.40(.06)	.28	.52
Affection	1.38	.24	1.86	308	.13(.07)	-.01	.27
Rational explanation	.36	.55	.97	308	.08(.08)	-.08	.23

Note. *** $p < .001$, ** $p < .01$, M.D= Mean Differences

Table 4. Invariance Test

	χ^2	df	TLI	CFI	RMSEA
Default model	393.787***	188	.855	.887	.060
Metric invariance constraints model	415.679***	199	.856	.881	.059
Cross-group equality constraints model	420.279***	206	.862	.882	.058

Note. *** $p < .001$

Table 5. Standardized path coefficient(β)

	Parents family	Single parent family
Monitoring → Life satisfaction	-.04	-.14
Rational explanation → Life satisfaction	-.01	.02
Affection → Life satisfaction	.40*	.46*
Ego-resilience → Life satisfaction	.45***	.48***
Monitoring → Ego-resilience	.09	.33*
Rational explanation → Ego-resilience	.25	-.12
Affection → Ego-resilience	.36	.45*

Note. * $p < .05$, *** $p < .001$

Table 6. Mediation effects of ego-resilience in single parent family

Path	β	SE	95% confidence interval	
			lower	upper
Affection → Ego-resilience → Life satisfaction	.21**	.13	.092	.406

Note. ** $p < .01$

각 집단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 자아탄력성, 삶의 만족도의 관계모형 경로계수는 Table 5와 같다. Table 5가 제시하는 결과에 따르면, 부모가정 집단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로서의 애정($B=.43, P<.05$)과 자아탄력성($B=1.14, P<.001$)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애정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다($B=.15, P=.067$). 반면, 한부모가정 집단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로서의 애정은 자아탄력성($B=.24, P<.05$)과 삶의 만족도($B=.45, P<.05$)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자아탄력성 또한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B=.87, P<.001$). 이 집단에서는 양육태도로서의 감독 역시 자아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32, P<.05$).

한부모가정 집단에서 나타난 경로계수의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6에 제시되었다. 분석결과, 부모의 양육태도로서의 애정이 자아탄력성을 통해 초등학생 자녀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매개효과는 .21, 매개효과에 대한 95% 신뢰구간은 (.092, .406)로 나타나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부모의 양육태도로서의 애정이 초등학생 자녀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또한 유의하였기에 이들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은 부분매개효과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육태도로서의 감독이 지닌 매개효과는 .18이었으나 유의수준이 $p>.05$ 로 나타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부모가정 부모가 지닌 높은 수준의 애정적 양육태도는 초등학생 자녀의 삶의 만족도를 직접적으로 높일 뿐만 아니라 자녀의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킴으로서 이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도 한다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SPSS를 통해 추가적으로 실시한 two-way ANOVA 분석결과, 부모집단의 조절효과는 자녀의 자아탄력성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유의한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F= 1.480, P=.038$). 이는 자녀의 자아탄력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부모구성 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5. 결론

‘부모’라는 외적 환경과 자아탄력성이라는 개인 내적 자원은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기 위해 부모 구성(부모가정, 한부모가정) 변인과 부모 양육태도(애정, 감독, 합리적 설명) 변인, 자아탄력성 변인을 선정해 이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을 매개하여 초등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부모 구성에 따라(부모가정, 한부모가정)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매개모형에 대한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집단에서 변인들의 평균 차를 살펴보았을 때, 한부모가정의 아동이 부모가정보다 감독하는 양육태도, 자아탄력성, 삶의 만족도에서 유의미하게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한부모가정 아동이 부모가정의 아동보다 부모의 감독적인 양육태도를 덜 인지하고, 자아탄력성과 삶의 만족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연구문제 1과 관련해 부모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인 양육태도는 부모가정과 한부모가정 모두에서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이는 부모 구성에 상관없이 양육자가 초등학생 자녀에게 애정을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잘 전달하고 자녀의 요구에 민감할 때 초등학생들의 삶의 만족도가 증가함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반면, 부모의 감독적이고 합리적 설명을 수반하는 양육태도는 부모가정과 한부모가정 모두에서 자녀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셋째, 연구문제 2와 관련해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부모가정 집단과 한부모가정 집단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즉, 부모가정 집단에서는 애정, 감독, 합리적 설명이라는 각각의 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은 반면, 한부모가정 집단에서는 감독, 애정적인 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에 정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넷째, 연구문제 3과 관련해 부모 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을 거쳐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매개효과는 한부모가정 집단에서만 유의

하게 나타났으며, 부모가정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 양육태도 중 애정적 양육태도만 삶의 만족도와와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부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부모가정의 경우에만 부모의 애정적인 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을 경유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부모가정 아동의 경우 부모가정 보다 자아탄력성, 삶의만족도, 감독적 양육태도 평균이 유의하게 낮았는데, 특히 자아탄력성과 삶의 만족도는 아동의 적응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69,70] 이러한 결과는 한부모가정 아동이 부모 가정의 아동보다 적응적인 면에서 전반적으로 취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한부모가정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삶의만족도 향상을 위한 지원과 개입방안이 꾸준히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부모의 양육태도 중 감독적 양육태도만이 두 집단에서 평균 차이를 나타냈는데 양육자의 애정과 양육 기준에 해당하는 합리적 설명은 아동이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는지 확인하는 감독적 양육태도 보다 항상성 있는 개념으로, 아동이 그간의 경험으로 한부모의 애정과 양육 기준을 내면화하여 가족구성이 달라져도 이 부분들에 있어 크게 차이를 지각하지 못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감독적 양육태도의 경우, 경제적 활동 및 가사노동 부담이 증가된 한부모가 자녀를 이전보다 감독하는 빈도가 절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은 부모가정의 자녀보다 감독적 양육태도를 덜 지각하게 됐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부모가정 아동이 부모의 감독적 양육태도를 더 낮게 지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감독적 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에서 좀 더 상세히 언급하고자 한다.

둘째, 부모구성에 상관없이 세 가지 양육태도 중 애정적 양육태도만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러한 결과는 부모 및 한부모가정에서의 애정적 양육태도가 초등학생의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진아[71]와 한호종[72]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이들은 애정적인 양육태도 뿐만 아니라 감독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을 통한 양육방식도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관련변인들의 관계를 탐구한 연구들에서도 대부분 애정적 양육태도와 더불어 감독, 합리적 양육태도도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나타나[73-76] 본 연구 결과는 기존 연구의 일부만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생과 중·

고등학생 또는 시기별 조망수용능력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마음이론(Theory of mind)에서는 인간이 자신과 타인의 마음 상태에 대해 이해하여 타인의 의도, 동기, 사고에 대해 추론하고 타인의 다양한 정신 상태를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77]. 이러한 조망수용능력은 청소년기부터 성인기까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달하는데 청소년 중기에 해당하는 집단이 청소년 초기에 해당하는 집단보다 높은 조망수용능력을 보였다[78,79].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 등 일상생활에 대해 파악하고 확인하는 감독적인 양육태도와 자녀를 올바르게 훈육하기 위해 분명한 기준과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는 합리적 양육태도는 조망수용능력이 더 발달한 중학생 이상의 중기 청소년기 학생들에게는 애정으로 지각되어 삶의 만족도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시 말해, 초기 청소년에 해당하는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의 의도를 조망하고 수용하는 능력이 중·고등학생보다는 덜 발달되어 양육자의 감독적인 양육태도와 합리적 설명을 제공하는 양육태도가 애정으로 인식되기 더 어렵기 때문에 감독적, 합리적 설명을 수반하는 양육태도가 초등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한부모가정 집단에서만 유의했는데 이는 한부모가정 아동들의 자아탄력성 발달은 부모가정 아동들에 비해 부모의 애정과 감독하는 양육태도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의 연관성이 한부모 가정에서만 유의하게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진다정과 이승연[80]은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유아 및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부모의 양육태도 관계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을 실시했는데 연구결과 유아기와 아동기의 자아탄력성 발달과 관련된 부모의 양육태도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즉, 유아기에는 양육자의 애정적, 자율적 양육태도의 경험이 중요하고, 아동기에는 상대적으로 부모로부터 성취적 양육태도를 경험하는 것이 자아탄력성 발달에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의 결과를 본다면, 본 연구에서는 성취적 양육태도에 대한 변인을 사용하지 않았기에 부모가정 아동의 자아탄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없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한부모가정 아동의 경우에는 스트레스 대처에 대한 효능감 발달에 있어 부모의 감독과 애정에 대한 지각이 여전히 중요함을 의미하는데, 이는 발달과정에서 또는 충격적 사건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부모로부터의 애정 및

일상에 대한 관심 표현이나 부모의 감독을 더욱 필요로 함을 나타내는 결과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부모가 정 아동에 비해 한부모가정 아동이 보호자의 감독적 양육태도를 유의하게 낮은 수준으로 지각하였는데 감독적 양육태도가 한부모가정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난 것은 이들의 스트레스 대처 및 적응 능력 향상을 위해 한부모의 감독적 양육태도가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부모가정 아동은 부모의 이혼, 사별 등 심리적 타격이 큰 가족관련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하거나 한쪽 부모의 부재로 인해 여러 가지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서 지속적인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정서적 어려움은 일상생활의 적응 또는 스트레스 대처에 대한 자신감을 약화시키기 쉬우므로 [81-83] 한부모 가정의 아동은 주양육자로부터의 돌봄과 관심, 감독을 더욱 필요로 하게 되며 이를 충족하는 것이 긍정적 자기개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선행연구는 한부모가정 아동-청소년들의 경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부모를 먼저 배려하거나 보호하고자 하며, 발달과정에서 충족되어야 할 욕구들이 억압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는데[84], 양육자 뿐만 아니라 이들을 돕는 관계자들은 한부모가정 아동들이 양육자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부모가정 아동들과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이들이 자신의 바람과 욕구를 잘 표현하고 충족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리하면 본 연구의 결과는 한부모가정의 양육자의 경우 자녀가 부모의 애정과 관심을 느끼고 자신의 일상을 지켜보고 관리해주고 있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자녀에게 충분히 표현하는 것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넷째, 부모 양육태도 및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는 한부모가정에서만 유의했는데 이는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부모가정의 경우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 뿐만 아니라 자아탄력성의 관리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부모가정 아동의 경우 자아탄력성을 거치지 않고도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반면, 한부모가정 아동의 경우에는 직접 효과 뿐만 아니라 자아탄력성이 부분매개하면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애정적 양육태도가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기도 하지만 애정적 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삶의 만족도가 높아짐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두 변인을 함께 관리해줄 때 삶의 만족도가 더욱 향상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 결과 두 집단에서 애정적 양육태도 지각에 대

한 평균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고 애정적 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은 한부모집단에서만 유의했는데 이는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한부모가정 아동에서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를 통해 발달적 관점에서 이와 관련하여 상술했듯이 한부모가정의 경우 아동의 자아탄력성 발달에 있어 여전히 부모의 양육태도라는 환경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한부모가정 아동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나 교육적, 상담적 개입 시에는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에 의해 자아탄력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두 변인에 대해 함께 개입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부모가정 아동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 및 개입에 있어서는 부모가정 아동의 경우에도 자아탄력성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 사용하지 않은, 이들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제3의 변인을 모색하여 포함해야 할 것이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한부모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상대적 중요성이 부모가정 아동의 경우와 다소 상이한 결과를 나타낸다. 석소현과 신성희는[85] 학령기의 한부모가정 아동과 부모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하였는데, 연구결과 한부모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에는 내적통제성, 행동문제, 학업성적 등과 같은 개인특성 요인보다는 사회적 지지나 가족 강인성(family hardiness)과 같은 가족 및 사회적 관계 관련 변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반해, 부모가정 아동의 경우엔 개인 특성요인들이 더 중요하게 나타났다.

가정환경이 생활의 중심이었던 유아기를 지나 학령기 아동은 가족을 벗어나 학교생활을 중심으로 학교에서의 대인관계 및 학업 성취가 주요한 발달과업이 된다[86]. 여전히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아동의 관심이 다른 사회적 관계나 학업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환경에 놓이는 개인은 새로운 관심 영역으로 쉬이 넘어가기보다 원래 있었던 익숙한 환경에서 안정감을 충분히 경험하기를 원한다. 이런 맥락에서 환경적 취약성에 놓이기 쉬운 한부모가정 아동의 경우 부모가 제공하는 정서적 환경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생활에 대한 적응이나 만족감에 있어 문제에 대한 대처나 자아통제력과 관련된 자아탄력성이 더 요구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들에서 한부모가정이나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을 예측하는 주요한 변

인으로 자아탄력성이 일관되게 강조되는 것은 이와 같은 맥락으로 생각할 수 있다[87-90]. 비교연구는 아니지만 중학교 1학년 다문화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91] 자아탄력성은 부모의 지지 및 감독 변인과 학교적응 변인 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했을 뿐만 아니라 부모 감독보다는 부모 지지 변인이 학교적응에 더 중요함을 나타냈는데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맥(脈)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시사점을 종합하면, 본 연구는 아동기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양육자들이 자녀에게 친밀감을 충분히 표현하고 전달하며, 아동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돕는 부모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이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는 실무적 함의를 제공한다. 한부모가정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녀의 자아탄력성 향상을 위한 부모 양육태도 관련 프로그램 구성이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이 두 요소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개입방식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한부모가정 아동의 환경자원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시간적·물리적 한계가 발생할 수 있는 한부모가정 양육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기관 및 다양한 시간대에 부모교육이 시행되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부모가정 아동의 경우에는 이들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부모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에 대해 독립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 각각의 특성을 향상시키는 개입 방식도 고려할 수 있겠다.

본 연구가 지닌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삶의 만족이라는 개념은 노년기 연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청소년 특히 초기 청소년인 초등학생의 삶의 만족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은 대부분 개인 내적인 요인 혹은 부모의 성별에 따른 양육태도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연구는 더더욱 찾아보기 어려웠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인 중 부모의 양육태도를 추가로 선정하여, 개인 내적 요인인 자아탄력성과 환경 변인인 부모의 양육태도가 어떠한 양상으로 초등학생의 삶의 만족에 다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는데 차별적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조절변인으로 환경적 요인인 가족구조를 선정하여 부모가정과 한부모가정에 따라 아동의 삶의 만족이 달라지는지를 검증함으로써 기존에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부모구성에 따른 아동의 삶의 만족에 대한 연구에 확장된 지식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지닌다. 끝으로, 기존의 초등학생 대상 연구들은 부적응, 비행, 우울 등 문제중심의 원인론적인 접근에서 이루어졌다[92]. 이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양육태도, 자아탄력성, 삶의 만족도와 같은 보호요인을 중심으로 아동의 적응에 밀접한 변인들 간의 관계를 탐구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부모가정은 이혼가정, 사별가정, 부자가족, 모자가족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짐에도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가정의 세부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동질집단으로 가정하여 살펴보았다. 부모가정도 양친부모, 계부 및 계모 등 다양한 가족유형이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좀 더 세밀한 구분을 통해 다양한 가정의 모습에 따른 아동의 삶의 만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였기에 표본추출의 과학성은 있으나 다양한 변인을 상황에 맞게 구성하는 것과 문항 보완에 한계를 가진다.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고 학령기 아동에 대한 성취적 양육태도 변인을 추가하는 등 연구 설계를 보완하여 양육태도 및 자아탄력성이 부모구성에 따른 아동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다각적으로 파악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는 자기보고식 척도를 활용하여 응답자의 주관적인 반응에 의해 도출되었다. 부모의 실제 양육태도와 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는 다를 수 있으므로 부모 평정 혹은 제 3자의 평정에 의한 양육태도도 측정되어 분석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한 해 동안의 횡단 자료만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연구모형의 인과 관계를 추론하는데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 보고 이를 통해 좀 더 정교한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삶의 만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변인인 자아탄력성과 환경적 변인인 부모의 양육태도 및 부모구성을 융합적으로 연관시켜 아동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 그 요인들의 유기적 관계에 대한 지식을 확장시키는데 기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삶의 만족을 증진 시킴에 있어 융·복합적인 접근을 돕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FERENCES

- [1] E. H. Erikson. (1950).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DOI: 10.1126/science.113. 2931.253
- [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9). *2018 Current Status of Child Survey*. Sejong City.
- [3] Statistics Korea. (2019). Causes of Death Statistics in 2019 <http://www.kostat.go.kr>
- [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9). 2019 Annual Report on Child Abuse. Sejong City.
- [5] Y. Yang. (2008). Social inequalities in happiness in the U.S. 1972-2004: An age-period-cohort analy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3(2), 204-226.
- [6] E. Diener., R. E. Lucas & S. Oishi. (2018). Advances and open questions in the science of subjective well-being. *Collabra: Psychology*, 4(1), 1-49.
- [7] C. L. Proctor., P. Linley & J. Maltby. (2009). Youth life satisfaction: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0, 583-630.
- [8] C. G. McKnight., E. S. Huebner & S. Suldo. (2002). Relationships among stressful life events, temperament, problem behavior, and global life satisfaction in adolescents. *Psychology in the Schools*, 39, 677-687.
- [9] Y. H. Kang. (2019). The Effects of Happiness Enhancing Program on the Happiness and the Resilience of Elementary Students in Rural Area. *The Korean Journal of Elementary Counseling*, 18(1), 69-86.
DOI: 10.28972/kjec.2019.18.1.069
- [10] M. S. Yoo, K. S. Chung, S. H. Park, J. R. Cha & K. P. Hong. (2013). Childrens and Adolescents Perceptions of Happines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1(3), 15-26.
DOI: 10.7466/ JKHMA.2013.31.3.015
- [11] C. I. Kim, K & Y. Lee. (2015). Original Article : The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on Achievement-Oriented Parenting Style, School Adjust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as Perceived by Children.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3(5), 503-517.
DOI: 10.6115/fer.2015.040
- [12] Y. H. Kang. (2020). An Analysis of the Research Trends of Articles about Elementary Students's Happiness . *Korean Journal of Elementary Counseling*, 19(1), 29-47.
DOI : 10.28972/kjec.2020.19.1.029
- [13] J. Y. Namkung & Y. B. Kim. (2015). Exploring the Student and School Factors Affecting Happiness in Elementary School Life .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53(2), 1-25.
- [14] S. R. Yu. (2015).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subjective well-being of elementary middle school students*. Master's dissertation, Dongguk University, Seoul.
- [15] J. M. Kim (2019). Exploring the factors affecting elementary student's happiness. *CNU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40(3), 161 ~ 180.
DOI : 10.18612/cnues.2019.40.3.161
- [16] Anna Kim & H. J. Kim. (2018). Trajectories and determinants of life-satisfaction among South Korean children.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22(1), 45-63.
DOI: 10.21459/kccr.2018.22.1.45
- [17] S. R. Kang & B. S. Park. (2016).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life satisfaction level among children and youths: Focused on comparison between intact families and single parent families. *Korean Correctio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1(2), 5-25.
- [18] J. Block & A. M. Kremen.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Journal of Peronsla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 [19] D. Myers & E. Diener. (1995). Who is happy? *Psychological Science*, 6 (1), 10-19.
- [20] F. Fujita & E. Diener. (2005). Life Satisfaction Set Point: Stability and Chan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1), 158-164.
DOI: 10.1037/ 0022-3514.88.1.158
- [21] E. Diener., R. Lucas., & S. Oishi. (2002). *Subjective well-being: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In C. R. Snyder & S. J. Lopez(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N.Y.: Oxford 63-73.
- [22] E. K. Suh, & J. S. Koo (2011). A Concise Measure of Subjective Well-Being(COMOSWB):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The Korea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5(1), 96-114.
- [23] E. Diener. (2000). *Subjective well-being-The science of happiness and a proposal for a national index*. In C. R. Snyder & S. J. Lopez(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N.Y.: Oxford Uni. 34-43.
- [24] E. Y. Yun, O. N. Kim & H. S. Kim. (2018). Effects of Parental Relations, Cultural Identity, Depression, Anxiety, and Social Discrimination on the Satisfaction of Life in Multicultural Families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ego resilience. *The Journal of Multicultural Society* 11(1), 345-375.
DOI : 10.15685/ jms.2018.02.11.1.345
- [25] E. Diener & E. Suh. (1997). Measuring Quality of Life Economic, Social, And Subjective Indicators. *Social Indicators Research* 40, 189-216.
DOI: 10.1023/A:1006859511756
- [26] R. Veenhoven. (2018). *Happiness in nations: Pursuit of greater happiness for a greater number of citizens*. In C. R. Snyder, Shane J. Lopez, Lisa M. Edwards, and Susana C. Marques(eds.). The Oxford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3r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12.

- [27] E. N. Jung. (2015). *Analysis on the Variables Affecting Perceived Happines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28] H. S. Park & S. H. Yang. (2017). The Growth Trajectory of Multicultural Children's Life Satisfaction in Korea. *Korean Education Inquiry*, 35(4), 95-121. DOI : 10.22327/kei.2017.35.4.095.
- [29] O. Chung & S. Chung. (2018). *Parent education*. Seoul. Hakjisa.
- [30] J. Bowlby. (1980). By ethology out of psycho- analysis: An experiment in interbreeding. *Animal Behaviour*, 28(3), 649-656. DOI: 10.1016/S0003-3472(80)80125-4
- [31] W. C. Becker. (1964).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rver*. New York: Russell Sage.
- [32] M. Huh. (2000). *The study for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parenting behavior inventory' perceived by adolescent*.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33] K. M. Kim. (2010). The correlations Between Parental disciplinary Styles and Subjective Well-being of Students in Middle & High school -As Intermediation with Ego-resilience. *Forum For Youth Culture*, 25, 40-74.
- [34] S. A. Lim, (2014). The effects of democratic and non-democratic parenting style on child's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school adjustability, and academic achievement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using SEM).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27(2), 73-93.
- [35] Y. M. Kim & Y. S. Lim, (2012). Structural Model of Democratic Parenting Style, Ego- resilience, Cell phone Dependency, *Self- directed Learning*. *Studies on Korean Youth*, 23(2), 273-299.
- [36] E. S. Jung. (2008). *The Effects of Parental Care and Overprotection on Subjective Well-being and Depression: The Roles of Hardiness and Perfectionism as Mediators*. Doctoral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 [37] T. J. Dishion & R. J. McMahon. (1998). Parental Monitoring and the prevention of child and adolescent problem behavior: A Conceptual and empirical formation.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1(1), 61-75.
- [38] J. J. Ko. (2005). The Effect of Parental Monitoring and Adolescents' Self- Control on Adolescents' Problem Behavior.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3(2), 1-17.
- [39] B. Y. Sohn, S. J. Kim, J. A. Park & Y. H. Kim. (2012). The Effects of Desirable Parenting Attitudes upon Life Satisfaction in Early Adolescence : The Mediating Effects of School Adjustment and Ego-resilience and Multiple Group Analysis across Gender. *Studies on Korean Youth*, 23(1), 149-173.
- [40] S. H. Cho & S. Y. Park. (2015). Life Satisfaction Factors of Early Adolescents. *Family and Family Therapy* 23(4), 801-818.
- [41] J. Belsky.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42] K. H. Jeon & S. Song. (2013). A Process by Which Social Capital Inside and Outside of a Family Affects Children's Adaptation to School Life: The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8(1), 143-165.
- [43] Y. J. Kim & Y. H. Kim. (2009). Effects of Daily Stress and Ego-Resilience on Maladjustment in School-Aged Children.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4(2), 123-142.
- [44] S. H. Jang, E. H. Choi & J. Y. Lee. (2016). The Medi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in the Effect of Elementary Students' Psychological Well-being on Adjustment to School Life and Everyday Life Stress. *The Korean Journal Child Education*, 25(2), 353-364.
- [45] Z. E. Taylor, N. Eisenberg, T. L. Spinard, N. D. Eggum & M. J. Sulik. (2013). The relations of ego- resiliency and emotion socialization to the development of empathy and prosocial behavior across early childhood. *Emotion*, 13(5), 822-831. DOI: 10.1037/a0032894
- [46] G. Kang & H. Shin. (2013). Influences of Social Desirability, Emotion Awareness and Expression Abilities on Life Satisfaction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3(1), 427.
- [47] Z. E. Taylor, M. J. Sulik, N. Eisenberg, T. L. Spinrad, K. M. Silva, K. Lemery-Chalfant, & B. C. Verrelli. (2014). Development of ego-resiliency: Relations to observed parenting and polymorphisms in the serotonin transporter gene during early childhood. *Social Development*, 23(3), 433-450. DOI: 10.1111/sode.12041
- [48] J. Block & J. Block. (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ins(Ed.). *Minnesota Symposia Child Psychology* 13, 39-101.
- [49] D. J. Jin & S. Y. Lee. (2019).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ego-resilience and their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The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50(3), 153-177. DOI : 10.15854/jes.2019.9.50.3.153
- [50] S Kang & K. H. Ryu. (2019). The Life Satisfaction and Ego-Resilience in Primary School Entrants': A test of school adjustment's mediation effec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9(11), 149-158. DOI : 10.22156/ CS4SMB.2019.9.11.149
- [51] Y. J. Lee & S. H. Noh. (2019).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Learning Habit, Peer Attachment, Life Satisfaction, and Ego-Resilience.

-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11), 695-714.
DOI: 10.22251/jlcci.2019.19.11.695
- [52] S. Jeong & J. Kim. (2017). The Relations of Parenting Behaviors to Ego Resilience Among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8(3), 253-270.
- [53] J. Song & M. Park. (2015). The Influence of Abuse from parents on Adolescent in School Life Adaptation :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and Self-resilience, *Forum for Youth Culture*, 43, 57-84.
- [54] G. Cho & E. Lee. (2007). Early Adolescent's Ego-Resiliency : Mediatinal Links between Parenting Behaviors, Family Strength, and Behavior Problems. *Studies on Korean Youth*, 18(1), 79-106.
- [55] Statistics Korea (2019). e-country indicators. Ratio of single-parent households, <https://www.index.go.kr>
- [56]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8). *A Study on the Status of Sole- Parent Families*.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 Seoul.
- [57] H. S. Hong. (2004). The effect of parental divorce on psycho-social adjustment of adolescent children: The mediating effects of family income and parentin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17), 151-177.
- [58] A. R. Han. (2018). The Effect of Parental Life Satisfaction, Positive Parenting, Self-esteem on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A Comparison between Low-Income and Ordinary-Income of the Household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5(5), 1-24.
DOI : 10.21509/KJYS.2018.05.25.5.1
- [59] Anna Kim & H. J. Kim. (2018). Factors Associated with Life Satisfaction from Late Childhood to Early Adolescence. *Family And Culture*, 30(3), 70-94.
DOI: 10.21478/family. 30.3.201809.003.
- [60] H. S. Kim & S. Yoon. (2017). The Effect of the Support of the Community Child Center on Children's Happiness: The analysis on multi-groups of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resilience of children with a single parent and children with two parents. *Journal of Youth Welfare*, 29(4), 1-24.
DOI: 10.19034/KAYW.2017.19.4.01
- [61] Y. H. Kim & C. K. Han. (2017).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Life Satisfaction and Parents' Life Satisfaction: Using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8(3), 29-55.
DOI : 10.16999/kasws.2017.48.3.29
- [62] H. Y. Baek & H. Kang. (2016). The Effects of Poverty on Happiness of Children -Mediating Effects of Social Capita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54, 113-144.
- [63] H. S. Kim. (2016). The Effect of Economic Status of Single-Parent Families on Children's School Adjustment. *Korea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54, 297-331.
- [64] H. J. Nam, H. S. Yoon, T. Y. Lee, C. Y. Shin & D. H. Lee. (2013). A Understanding Adolescents' Development and Adaption in Single Parent Families: A review of the literatur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8(1), 2013.3, 129-168.
- [65] S. A. Kim. (2011). Trajectories of Change in Aggression and Internalizing Problems and Effects of Early Protective Factors in Children of Divorce: A Comparison with Married Familie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6(3), 5-34.
- [66] S. Kim et al (2006). *Korean Youth Development Index Survey*. Seoul : NYPI.
- [67] S. Yoo & H. Shim. (2002). Psychological Protective Factors in Resilient Adolescents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6(4), 189-206.
- [68] G. W. Cheung & R. B. Rensvold. (2002). Evaluating goodness-of-fit indexes for testing measurement invari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2), 233-255.
DOI : 10.1207/S15328007SEM0902_5
- [69] H. Lee & Y. Kwak (2011).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Life satisfaction and School Life satisfaction in the early youth. *Korea Journal of Youth Studies*, 18(7), 59-83.
- [70] H. J. Nam, H. S. Yoon, T. Y. Lee, C. Y. Shin & D. H. Lee. (2013) A Understanding Adolescents' Development and Adaption in Single Parent Families: A review of the literatur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8(1),
- [71] J. A. Lee. (2007). *The effect of Parenting, Social support and Ego-resilience of Single-Parent-Family Children on the Psychological adjustment*. Master's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Seoul.
- [72] H. J. Han. (2015). *Influence of Parenting Attitudes in Adolescents on Life Satisfaction and Mediating Effects of Life Goals*. Master's dissertation, Woosuk University,
- [73] H. Y. Ko. (2012). *Parenting attitudes and middle school students' life satisfaction mediated by self-esteem and peer attachment*. Master's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74] B. Sohn, S. Kim, J. Park, Y. Kim. (2012). The Effects of Desirable Parenting Attitudes upon Life Satisfaction in Early Adolescence : The Mediating Effects of School Adjustment and Ego-resilience and Multiple Group Analysis across Gender. *Studies on Korean Youth* 23(1), 149-173.
- [75] S. Y. Lim. (2015). The Effect of Perceived Parenting Attitudes of Single-Parent Family Youth on the Life Satisfaction. *International Theology*, 17, 353-376.
- [76] J. H. Hwang. (2016). *The Effect of Parental Attitude on Adolescent 's School Adjustment: Mediating Effect between Adolescent' s Life Satisfaction and Depression*. Doctoral dissertation, Seoul Christian University, Seoul.
- [77] W. W. Bang. (2010). *Effect of Perspective-Oriented*

Social Skills Training on Improvement of Socially in Schizophrenics. Doctoral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 [78] H. Shim & S. Y. Kim. (2018). The Development of Theory of Mind in Adolescence and Effects of Empathy. *Korean Society for Emotion and Sensibility, 2018*, 107-108.
- [79] M. Bialecka-Pikul, A. Kołodziejczyk & S. Bosacki. (2017). Advanced theory of mind in adolescence: Do age, gender and friendship style play a role?. *Journal of Adolescence, 56*, 145-156.
- [80] D. Jin & S. Y. Lee. (2019).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ego-resilience and their parents' child rearing attitudes. *The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50(3)*, 153-177.
DOI : 10.15854/jes.2019.9.50.3.153
- [81] K. S. Chung. (2008). Social-emotional Competence of Children in Single-parent Families: Effects of Primary Caregiving by Single Parents Alone Compared with Primary Caregiving by a Non-parent.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9(3)*, 207-222.
DOI : 10.16975/kjfs.2015..47.001
- [82] S. Y. O. Lee & J. Kim. (2005). Predicting internalizing problems of Korean children of divorce: The role of self-efficacy, peer attachment, parent-child communicatio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3(1)*, 99-111.
- [83] J. Bigner. (2006). Parent-Child relations: An introduction to parenting. *Columbus, OH: Pearson/Merrill*.
- [84] H. J. Nam, H. S. Yoon, T. Y. Lee, C. Y. Shin & D. H. Lee. (2013). A understanding adolescents' development and adaption in single parent families: a review of the literature.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8(1)*, 129-168.
DOI : 10.18205/kpa.2013.18.1.007
- [85] S. Sok & S. H. Shin. (2010). Comparison of the factors influencing childrens self-esteem between two parent families and single parent famili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0(3)*, 367-377.
DOI : 10.4040/jkan.2010.40.3.367
- [86] H. A. Nam & S. Yang. (2005).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role stress in parents of primary school stud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14*, 323-334.
- [87] E. Go & S. H. Kim. (2018). The effect of bilingual ability of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on school life adaptation: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self-resilience. *Bilingual Research, 72*, 1-23.
DOI : 10.17296/korbil.2018..72.1
- [88] B. J. Kang, E. H. Kim & C. R. Nho. (2012).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school life satisfaction: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resiliency among father-headed families and mother-headed families.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23, 29-50.

- [89] K. H. Ki. & K. S. Kim. (2016). An analysis on the resilience of the children of single-parent families who experienced parents loss. *The Journal of Korea Elementary Education, 27(3)*, 15-36.
DOI : 10.20972/Kjee.27.3.201609.15
- [90] B. J. Seo. (2017). The mediation effect of self-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aring attitude and school life adjustment perceived by multicultural family teenagers.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14(3)*, 111-133.
- [91] Y. Lim. (2019). Relationships between parental support and monitoring and school adjustment in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mediating role of ego-resilience.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31(3)*, 41-55.
DOI : 10.19031/jkheea.2019.09.31.3.41
- [92] S. Song. (2014). The protective factors of family structure on child depression: Focusing on parental emotional support and community support. *Studies on Korean Youth 25(1)*, 107-127.
DOI : 10.14816/sky.2014.02.72.107

허 자 연(Zayoun Huh)

[정회원]



- 2018년 3월 ~ 현재 : 고려대학교 생활과학과 박사과정
- 관심분야 : 정서발달, 부모양육태도, 아동상담, 다문화, 사이버불링
- E-Mail : zion_huh@korea.ac.kr

이 민 영(Minyoung Lee)

[정회원]



- 2020년 ~ 현재 : 고려대학교 뇌기능연구소 연구교수
- 관심분야 : 스트레스, 동기 및 정서, 다층 및 종단연구
- E-Mail : ghksgml@korea.ac.kr

이 미 경(Mi Kyoung Lee)

[정회원]



- 2015년 9월 ~ 현재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 관심분야 : 정서갈등, 학업정서, 불안
- E-Mail : lzy-green@hanmail.net

엄 정 호(Jeongho Uhm)

[정회원]



- 2018년 3월 ~ 현재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 관심분야 : 탄력성, 학업스트레스, 상담
- E-Mail : jeonghouhm@korea.ac.kr